

미래통합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구로구을 선거구

책자형선거공보

경제도,
구로도,
47 바꿉시다!

2

할말, 할일하는

김용태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구로구를 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 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2	미래통합당	김용태	남	1968.3.26. (52세)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현) 제20대 국회의원 (3선) 전)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1,281,009	707,412	573,597	육군 상병 (복무만료, 소집해제)	육군 일병 (복무중)

3. 세금 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44,060	없음		-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00만원 (1999.8.18.) -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벌금 250만원 (2003.9.16)
후보자	42,128			
배우자	1,932			
직계존속	-			
직계비속	-			

4. 소명서

--

대한민국 경제도, 20년 묵은 구로도 싹 바꿉시다!

설상가상(雪上加霜)

지난 문재인 정부 3년, 경제가 무너져 내려 먹고 살기 팍팍해졌는데,
코로나19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도, 우리 구로도 살 수 없습니다.
도대체 지난 3년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 뭘 일을 벌인 겁니까?
도대체 지난 20년 구로 국회의원들은 뭘 일을 했습니까?

저 김용태, 3가지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싹 바꿉시다.

누가 뭐래도 한국 경제, 이대론 안 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을 죽이는
소득주도성장 폐기합니다.
경제를 정상궤도로 되돌려 좋은 일자리를 만듭시다.

둘째, 20년 묵은 구로의 모습, 싹 바꿉시다.

지역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철도, 땅에 묻든지 위를 덮어
그 위에 상업-오피스-문화 콤플렉스 타운을 만듭시다.
과감하게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여
주거·교육·문화·경제 환경을 싹 뜯어 고칩시다.
디지털 단지, 판을 키워 핀테크 산업 메카로 만듭시다.

셋째, <김용태의 민원의 날>, 더 독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3번 하면서 한 달에 두 번 10년 동안
민원수 1만 5천여 건, 민원인 3만여 명을 만났습니다.
서럽고 억울한 국민들 사연 듣고 해결위해 뛰는 것은
국회의원의 엄중한 의무입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악착같이 싹 바꿔보겠습니다.



구로를 가로지르는 철도, 땅에 묻

철도 부지 위에 상업 오피스 문화 콤플렉스 건설, 코레

구로의 낙인, 철도

구로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철도입니다. 서울의 발이자 수도권의
핏줄인 철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로에게 철도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
니다. 고통이고, 낙인일 뿐입니다.

Don't say, No!

지난 20년간 안 되었는데, 될 리가 있냐고요?

구로 주민이 하나로 뭉친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이끌고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이 악착같이 달려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발상의 전환, 담대한 도전!

철도 위의 복합 시설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옆, 양천구 신정차량기지에는
아파트 단지가 지어졌습니다.
옆나라 일본에선 도심철도 구간 위에



하지 마십시오! 길을 찾으십시오!”

든지 위를 덮읍시다!

일과 대대적 민자 유치를 통해 비용해결

복합상업시설을 흔히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철도부지 위에 상업 오피스 문화
콤플렉스를 만들어봅시다.
특히 철도기지장 부지는 지상개발이
이루어지면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철도가 악몽에서 희망으로

막대한 공사비는 지상부 개발 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안 된다고만 할 겁니까?

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구로 주민의 단결된 힘, 구로 정치인들의
치밀한 전략과 불굴의 투지가
철도를 악몽에서 희망으로 바꿔내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양천에서 해냈습니다! 구로에서도 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서울제물포터널)

45m 지하에 신월IC에서 여의도(7.53km)까지
터널이 뚫렸습니다. 서울의 최대 정체구간이 해결
되고 지상 부분은 새롭게 개발될 예정입니다.

모두들 안 된다고 했습니다. 20년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절실한 필요가 있고, 해야만 하는 의지가
있다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저 김용태는 서울시와
협상에 협상을 거듭하여 결국 사업을 착공시켰습
니다.**

국회의원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간절한 바람을 안고 치밀한 전략을 세운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과감한 재개발, 재건축 추진으로 구로 도시의 틀을 바꿉시다!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으로 종 변경과 용적율 대폭 상향 추진
불합리한 기부채납 비율 대폭 낮춰 사업 수익성 향상

안 된다고 포기?

겉포장만 바꿔놓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은 답이 아닙니다. 구로의 도시의 틀 전체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곳,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과감히 추진합시다.

주거·교육·문화·경제 패키지

지난 20년간 못했으니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늦춘다면 구로는 더 낙후되고 주거환경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경제 환경이 모두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리봉동의 비극

얼마 전 가리봉동 지구단위 계획이 해제됐습니다. 그러자 난개발이 난무했습니다. 길 하나 사이로 가산디지털단지과 가리봉동은 천지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구로

저 김용태는 구로 주민과 함께 쾌적한 주거,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교육, 품위있는 문화, 활력넘치는 경제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구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디지털단지를 핀테크 메카, 4차산업혁명기지로 만듭시다!

여의도 금융특구와 묶어 핀테크 기업 집중유치
구로 전체의 디지털 거주-교육-문화-상업지역화

구로와 동떨어진 디지털단지

디지털 단지에 근무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곳으로 출퇴근할 뿐 구로에서 살지도, 자녀들을 교육하지도, 소비와 문화를 즐기지도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디지털 단지의 수많은 전문인력들이 구로에서 살고, 교육 문화 경제 환경을 향유토록 만듭시다.

디지털 단지의 새바람

디지털 단지에 새피·새바람을 불어넣어 판을 바꾸고 판을 키웁시다. 바로 옆 여의도 금융특구와 묶어 핀테크 산업의 메카로 만듭시다. 핀테크 기업에겐 디지털 단지가, 비용과 입지 조건면에서 최적의 장소입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 핀테크 산업

금융과 ICT가 결합한 정보통신금융산업은 이미 다가온 미래산업의 총아입니다. 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 한국의 토스와뱅크셀러드 같은 핀테크 기업이 미래 경제를 이끌 것입니다.

디지털 단지에 세계로 뻗어나갈 핀테크 기업을 대거 유치합시다.



대다수 국민들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무조건 잘했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럼,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이거 세 가지 잘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1

경제

경제 하나는
잘했습니까?

문 대통령은 민생을 챙기고 무엇보다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한번도 증명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소득은 줄고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집값은 뛰고 기업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2

공정과 정의

공정과
정의는
세웠습니까?

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약속은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염치는 오간데없고 탈법을 일삼으며 자기 자식 좋은 학교 보내는데 혈안이 되었던 조국 부부가 문 대통령이 얘기했던 공정과 정의의 가치였습니까?

3

국민통합

국민통합은
완성
했습니까?

문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한분 한분도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조국 사태에서 국민은 조국 수호와 조국 구속으로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태연하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국론 분열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문 대통령이 말한 국민통합입니까?

십년간 해온 <김용태의 민원의 날> 구로에서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김용태의 민원의 날> 이란?

- 2010년 7월부터 지금 오늘까지 총 200여차례
- 매달 둘째 넷째 토요일 종일 동안 지역사무소에서
- 총 민원 15,000여건
- 총 민원인수 30,000여명
- 억울하고 힘든 그 누구라도 올 수 있고,
- 국회의원은 물론 시의원, 구의원, 국회직원, 자원봉사자 모두 민원 해결에 나서
- 어떤 일이라도 끝까지 듣고 알아보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 백방으로 뛰고
-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정확하게 결과까지 말씀드려 왔습니다.

주민을 위해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때까지 한다

<김용태 의원실 사훈>

가장 많이 들은 말,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억울한 일, 딱한 사정의 이유를 뒤졌습니다.
법규와 관례 쫓고, 기관 만나 읍소하고 따졌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컸지만,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엄숙한 의무임을 알게 됐습니다.
저 김용태에게 민원의 날은
정치를 배우는 학교이자, 도량이었습니다.

저 김용태, 구로에서도 하겠습니다
정치를 끝내는 날까지
민원의 날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께 드리는 김용태의 각오

모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주민을 만나면 민원이 넘칩니다.
어떤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건 '왜 아직 이게
안 됐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순위 정하고 시구의원과
서울시와 구청을 압박해야
합니다. 설령 공약이 같아도,
그걸 해본 사람이 더 잘 합니다.

문제는
'누가 할 수 있느냐?'입니다.

저는 지난 12년 일하는 동안 현안을
풀기 위해선 현장이 최고라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그 일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 일의
역사를 파악하고, 그 일의 관련
부서 관계자를 파악하고, 그 일의
추진전략을 세우고, 그 일의 실행
방안을 찾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다 할 순 우선순위를 정해

가리봉동

- 용적률 문제 해결 통한 재개발 적극 추진
- 가리봉 중심도로 인근 문화의 거리 조성
- 가리봉 5거리 지역 상업지역 추진

구로 1동

- 치안센터 (파출소) 유치 추진
- 신구로 우수지 체육시설과 도서관 조성 및 접근성 강화
- 1호선 구일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신설

구로 2동

- 변전소 인근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추진
- 구로 2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추가 건설
- 구로중 인근 캠프 유희부지 활용 주차장 추진

구로 3동

- 재건축 및 리모델링 인센티브 제공으로 주차장 확보
- 남구로역 1번,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조기 완공
- 이화 우성 옆 일대 지역 재개발 추진



교육 및 보육

-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
- 공공, 작은 도서관 확충
- 초등생 무상 마스크 제공
- 아파트 단지별 품앗이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 자연친화형 학교숲 조성



환경 및 기타

- 건물 상부 및 공터 활용한 스마트팜 주말농장 분양



여성 및 어린이

- 경찰과 구청이 책임지는 통합안전관리센터 확대 개편

없습니다

급한 것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구로 4동

- 구로시장 상가인근 주차장 건립 추진
- 근로시설공단부지에 복지회관 및 행정타운 건설
- 주택가 공영 주차장 및 공원 추가 건설

구로 5동

- 구로 5동 주민센터 신축 복합개발 조기 추진
- 거리공원 지하차도 및 상부에 공원 및 체육시설 조성
- 노후위험주거시설 긴급안전대책 수립

신도림동

-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완공 및 상부 구간 공원 등 개발
- 293번지 일대 재개발 차질 없는 진행
- 구로역 에스컬레이터 조기 설치 및 동문 개설 (대림 1차 아파트 건널목 연결)



신도림동서 안양천 가는
오금교 밑 접근로 황당합니다.

당장 서부간선도로 위에 보행육교 만들겠습니다.

구로동, 가리봉동 전체 주민은
주차지옥에 삽니다.

서울시서 주차장 특별 회계 따오겠습니다.

아이들 등하교시 보행로 확보는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주민과의 이해조정, 끈질긴 협상과 설득에 앞장서겠습니다.

전철역 출구가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는 왜 없습니까.

서울시, 코레일, 지하철공사 압박해서 예산 따내겠습니다.

안양천 공원은
주민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합니다.

안양천 향한 폭 100미터 접근도로 만들겠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모든 골목 커버하는 CCTV와 가로등 설치하겠습니다.

더 해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십시오! 악착같이 하겠습니다.



생활 편의 증진

- 체육관 주민 개방
- 안양천 수영장 방역 및 안전관리 철저
- 안양천변 눈썰매장 입장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 인하
- 안양천변 그늘막 텐트 증설 및 캠핑장 취사 허용 (ex 난지캠핑장)



장애인

- 병원 뿐 아니라 보건소에서 장애인등록진단 가능하도록 보완
- 안양천 장애인 통행도로 개설



어르신

- 어르신용 무상 마스크 가정 배달



아들에게 부치지 못한 편지

아들, 아빠다.

지난 연말부터 이런 저런 이유로 휴가 연기되더니
코로나로 완전 휴가길 막혀 열받았지?

너 군대가기 전에 단둘이 여행했던 때가 생각난다.
그때 너는 막연한 두려움에 힘들어했었지.

네가 서부전선 공병대대 지뢰탐지병이 되었을 때
엄마는 많이 불안해했지만,

아빠는 우리 아들이 멋지게 해낼거라 딱 믿었다.

엄마 통해서 너 군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 듣고 있다.

너와 네 동료들 덕분에 우리 가족 우리 국민 모두 잘 살고 있다.

이 말 모든 군인에게 꼭 해주고 싶다.

아빠는 기다린다.

네가 아주 어릴적부터 주말이면 함께 가던 목욕탕 다시 가는 것,

코리안시리즈에서 한화이글스 좀 사고 치는 것,

우승을 하는 걸 같이 보는 것,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룹 퀸의 내한 공연을 같이 보는 것,

그럼, 아들 수고! 단결!

아빠가. (옆에서 엄마와 고3 여동생이)

- 현 국회의원(제18·19·20대 국회의원)
- 1968년 충남 대전 출생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전)
-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전)
- 국회 정무위원장(전)

할말하는사람!
할일하는사람!
김용태 2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8, 302호 T. 02-864-0415

 ytnetwork  yt_network  ytnetwork